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지역] 포스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앞장서

기사입력 2014.11.26 10:37 최종수정 2014.11.26 10:37



"정부·벤처기업협회와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창조경제협력' 협약체결 "

"8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포스코 육성 9개 벤처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2011년부터 40개사 66억원 직접투자, 132억여원 외부연계 투자 이끌어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벤처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선다.

포스코는 25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제8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대기업-중소, 벤처기업 창조경제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준 회장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투자자와 예비창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협약식에 따라 포스코는 대기업을 대표해 벤처기업협회 소속 유망 스타트업기업에 ▲기술창업 지원 ▲기술협력 ▲전략적 투자 및 M&A, ▲공동 글로벌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해 이번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창조경제협력' 사업자로 선정돼 벤처기업 육성 노하우를 전부 전수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우선 기존에 운영하던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를 확대해 기술창업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사무실내 ‘포스코 존(POSCO Zone)’을 마련해 해당 기업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포스코가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찾기 위해 협회 내 상시 리서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포스코가 소유한 기술을 벤처기업에 전수하기 위한 정기 기술교류회와 공동R&D를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창조경제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마치고 제8회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행사에서 의약품 벤처기업인 화이바이오메드의 시제품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왼쪽부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또 기존에 포스코그룹이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 해외조직을 활용해 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환영사에서“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코는 벤처기업과의 기술교류, 기술협력, 투자로 이어지는 중간 플랫폼을 일관되고 성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대기업-벤처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90개사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40개사를 대상으로 66억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외부 기관으로부터 132억여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포스코가 선발, 육성한 9개 벤처기업의 사업설명회와 시제품 전시를 진행했

고 지난 11월 14일 포항에서 진행한 ‘포스코 Start-up Day’에 참가한 3개 벤처기업도 참가해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다.

8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부품, 소재 국산화 및 사업화를 하고 있는 임경태 케이세라셀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벤처기업은 홈페이지(www.poscoventure.co.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